

그녀가 꿈꾸는  
음악  
유토피아

첼리스트 홍승아



우아한 백조의 자태 속에서 풀어나는 따뜻한 첼로의 선율, 새로운 아름다움에 호기심이 많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선한 향기가 전해져 온다. 지금 첼리스트 홍승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온 소망들을 무대에서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 그녀가 꿈꾸는 음악 유토피아는 어떤 곳일까?

C H A P T E R I

섬세하게 세공된 자연스러움,  
프랑스 작품을 만나는 시간

세계음악사에서 프랑스 음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소리의 구조보다는 색채에 중점을 두었던 프랑스 작품은 마치 공기처럼 마음에 여백을 남기는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우리는 천천히 그 음악을 듣고 느끼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만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첼리스트 홍승아의 독주회는 우아하고 절제된 프랑스 특유의 아름다움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했다. 프랑수아 쿠프랭의 콘서트용 다섯 개의 소품 (Cinq Pièces en Concert), 가브리엘 포레의 첼로 소나타 제2번 g단조, 작품 117,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폴치넬라> 중 이탈리아 모음곡, 카미유 생상스의 첼로 소나타 제1번 c단조, 작품 32가 이번 무대를 빛낸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연주자로서, 교육자로서 제 위치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주 일정과 교육 활동이 병행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바쁘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무대에 서서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가' '이 음악이 나와 청중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주회 역시 그런 고민의 흐름 속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독주회가 한달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라고 들었습니다.**

평소 프랑스 음악과 문화를 무척 좋아하는데, 때마침 올해가 한달 수교 14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해여서, 이번 독주회를 기획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수교 140년을 축하하고 기리고 싶은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무대를 통해 프랑스 음악



파리 피노컬렉션을 보고 나오면서(2025)

이 가진 고유한 미학과 정신을 제 나름의 해석으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에서 독주회를 더 특별히 준비해 보았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로서, 두 문화가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고 공유할 수 있는지 무대에서 보여 주면서 청중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프랑스 음악사의 의미는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  
죠?**

프랑스 작곡가들은 클래식 음악사에서 소리의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형식과 구조 중심의 음악 언어에서 벗어나, 음색·색채·질감 같은 요소를 음악의 핵심 표현 수단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이후 근대음악이 현대음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또한 다양한 개성이 깃든 프랑스 작품들은 연주자에게도 새로운 감각과 상상력을 요구하기에 많은 도전이 되고 신선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특히 프랑스 음악은 음 하나하나가 가진 결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룹니다. '정확하게 연주했는가'보다 '어떤 소리를 상상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프랑스 음악인 것 같아요. 때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여백을 남기는 용기가 필요한 음악, 이것이 프랑스 음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작품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라벨, 드뷔시의 곡이 아닌 작품들로 선정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스트라빈스키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상주의 사조가 나타나기 전, 프랑스 음악 미학의 기본 토대가 된 시대에 활동한 작곡가들의 작품입니다.**

연주자는 무대에서 연주할 작품을 선곡할 때 가장 설레고 벅참을 느낍니다. 제가 사랑하는 프랑스 작품들을 이번 독주회를 통해 어떻게 선곡해서 연주하고 나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자주 연주되지 않았던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고 다양한 프랑스 작품들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릴 쿠프랭은 바로크 시대 프랑스 작곡가로 프랑스 특유



워너 브루크호스트 전시관람

저는 청중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각자가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을  
음악 안에 남기고 싶어요.

의 언어와 감각이 분명히 드러나는 작곡가입니다. 바로크 첼로를 공부해 온 제 음악적 배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더 흥미로웠고요.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 속 절제된 특유의 장식음, 미묘하고도 섬세한 반짝임이 느껴지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만주의에서 인상주의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포레, 절제된 낭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생상스의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포레는 절제된 감정 속에 깊은 서정과 인간성이 담긴 음악을 쓰는 작곡가로, 첼로라는 악기의 본질적인 목소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죠. 생상스의 작품은 예전에 이 작품을 전공 연주한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 연주하는 작품들이 모두 새 작품인데 유일하게 생상스 작품은 예전에 무대에서 전공 연주를 하면서 올렸던 작품이에요. 그만큼 애정이 깊은 곡입니다. 포레는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기교, 구조적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곡가인데 특히 이번에 연주하는 작품은 첼로의 다양한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어서 포레 작품 중에서도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연주하는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러시아 작곡가이지만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면서 음악의 전통을 해체하고 재구성한 작곡가죠. 그야말로 20세기 음악을 바꾼 작곡가인데, 특히 발레 음악에서 느껴지는 다채로운 색채와 에너지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번 프로그램 안에서 스트라빈스키는 시간과 언어의 확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실내악, 협연 등 다양한 무대가 있지만 연주자에게 독주회가 갖는 의미는 좀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독주회는 연주자에게 가장 솔직할 수밖에 없는 무대이죠. 숨을 곳 없이, 모든 선택의 책임을 혼자 감당하기에 지금의 나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형식의 무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변해가는 내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지금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가장 외로우면서도 가장 의미있는 순간이 독주 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음악’으로 청중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화려한 기교보다 ‘듣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의 집중과 여백을 청중과 함께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독주회에서 함께 하는 피아니스트 줄리앙 캉탱(Julien Quentin)이 궁금합니다.**

프랑스 피아니스트 줄리앙 캉탱(Julien Quentin)과 함께 작업하면서 저는 너무나 큰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줄리앙은 단순히 뛰어난 테크닉을 지닌 피아니스트를 넘어, 프랑스 음악의 언어와 호흡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음악가이죠. 프랑스 음악은 특히 피아노 파트에서 색채와 뉘앙스가 매우 섬세하게 드러나는데, 줄리앙과의 리허설에서는 악보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들, 프레이즈의 결, 소리가 사라지는 방식, 여백의 감각에 대해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또 다른 배움의 시간입니다.

세공된 자연스러움, 유연함, 색채감 등 프랑스 음악의 매력을 피아니스트 줄리앙과 작업하면서 더 깊게 느낄 수 있었기에 이번 무대를 저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작업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는 연주하면서 항상 ‘어떻게 더 드러낼 것인가’보다 ‘어디에서 멈추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다는 점이었어요. 그 태도가 제가 프랑스 음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온 아름다움, 가치와도 맞닿아 있기에 이번에 함께 하는 음악 작업이 더 즐겁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중들도 색다른 프랑스 음악 언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겠군요.**

프랑스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함께 하는 청중들이 프랑스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고 좋은 영감을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연주회



조슈아 벨과 함께 메나헨 프레스러 선생님 90세 생신기념 연주(인디애나 재학시절)



인디애나 첼로 콘체르토 컴페티션 우승 후 협연



이번 프로그램의 영감을 받은 파리 오페라가르니에에서 오페라 관람(2025)

## C H A P T E R 2

### 첼리스트 홍승아의 음악 여정

어린 시절, 음악뿐 아니라 무용, 그림 등 다양한 예술을 만났던 그녀에게 첼로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다가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인디애나 음악대학을 거치며 그의 음악은 더 깊고 넓은 강으로 흘러왔고, 지금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청중에게 진실된 음악으로 말을 걸고 있다.

미국 'The Republic' 일간지로부터 '섬세한 감성, 호화스러운 금빛 음색'이라는 평을 받은 홍승아는 인디애나폴리스 마티네 뮤지칼레 콩쿠르 1위, 오사카 국제 음악 콩쿠르 2위 및 특별상 수상, 커티너 콰르텟 콩쿠르, 인디애나 대학교 협주곡 콩쿠르 우승 등 뛰어난 실력을 인정 받은 첼리스트이다. 또한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금호영체임버콘서트 오디션에서 우승했으며 미국 사라소타 뮤직 페스티벌,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초청받아 성공적인 연주를 가졌다.

#### 처음 첼로를 만난 순간은 언제인가요?

첼로를 처음 시작한 건 6세 때부터였어요. 무용, 성악도 함께 배웠는데, 첼로가 저에게는 운명이었나 봅니다.(웃음) 첼로의 소리는 처음부터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말보다 먼저 감정을 전해주는 악기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오래 함께 가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학창 시절, 무용과 성악을 공부했던 것이 첼로를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물론이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예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관심을 갖게 된 미술, 문학, 요리, 그리고 자연도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예술로 표현되어 왔던 거죠.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인디애나 음악대학에서의 시간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절에는 장형원, 이강호 교수님에게 연주 테크닉뿐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질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인디애나 음악대학에서의 모든 커리큘럼은 음악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오히려 제 음악적 정체성을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학시

절, 음악사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며 요리도 하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 인디애나 음대 시절, 현대 첼로를 전공하면서 바로크 첼로를 함께 복수전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절부터 바로크 첼로에 관심이 있었는데 인디애나 음대 유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바로크 첼로에 매료되게 되었어요. 바로크 첼로는 소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악기, 활, 음정, 제스처 하나하나가 음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고, 음악의 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대 첼로 연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실내악에도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신데요.(홍승아는 세계적인 실내악 팀인 보자르 트리오의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스러, 퍼시픽 콰르텟 등 이 시대 거장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블루밍턴 트리오와 커티너 콰르텟의 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와 함께 미국 워싱턴의 존 에프. 케네디 센터, 오벌린 칼리지, 시카고 파인 아트 빌딩 리사이틀 시리즈에 초청되어 연주한 바 있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이끄는 인디애나 대학교 스트링 앙상블에서 첼로 수석으로 활동했으며, 콜럼버스 인디애나 필하모닉, 에스핀 필하모닉, 인디애나 대학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첼로 수석을 역임했다.)

실내악은 타인의 숨결 속에서 음악을 듣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실내악 경험 덕분에 솔로 연주에서도 더 유연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훌륭한 음악가들을 만날 기회가 되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죠. 인디애나 음악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실내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교수들과 함께 연주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다양한 음악의 나이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 어떤 인생관, 예술관, 음악관을 갖고 있나요.

인생과 예술, 그리고 음악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믿습니다. 연주자로서 무대에 서는 태도와 인간으로서 삶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빠르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배움과 무대에서 보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선택하고  
떨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느껴집니다.

### 무대와 삶에서의 태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군요.

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음악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어떤 답을 제시하는 영역이라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영역이니까요. 음악을 통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청중이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불러올 수 있는 여백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음악 세계도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듣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하기보다는, 음 하나, 프레이즈 하나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존재하는 연주를 하고 싶어요.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연주, 다시 듣고 싶어서 그런 연주요.

### 연주자로서의 '나'의 길 위에서 지금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배움과 무대에서 보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구성이나 연주 방식에서 조금 더 분명한 맥락과 서사를 가진 무대들을 만들고 싶고, 단순히 좋은 곡들을 나열하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청중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또한 바로크 첼로와 현대 첼로를 병행해 온 경험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두 세계를 구분하기보다, 소리와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서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음악으로 보여주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고 싶어요.

### 음악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나요?

오랜 시간 다양한 경험과 실패와 도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쌓인 음악, 제가 음악 속에 담고 싶은 것은 거창한 메시지라기보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의 결, 그리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사랑과 위로입니다. 음악은 모든 것을 말해 주지 않죠. 오히려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이 전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어렸을 적 동경했던 미사 마이크와 앙상을 연주 리허설

### 침묵이 주는 메시지가 오히려 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청중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각자가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을 음악 안에 남기고 싶어요. 그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음악이 '질문'을 던진다는 말이 신선하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모두 '질문'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죠. 결국 제가 음악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은, 아주 잠시라도 그 순간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다면, 연주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 C H A P T E R 3

### 배움과 가르침은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

교육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홍승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장형원, 이강호 교수를 사사하며 솔로와 실내악 전반에 걸친 탄탄한 음악적 기반을 쌓았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 음악대학에서 에바 하이니츠(Eva Heinitz) 첼로 장학기금(Cello Scholarship Fund) 전액 장학금 및 예술 우수상을 수상하며 최고연주자과정(Artist Diploma)을 마쳤고, 피터 슈툼프, 조안나 블렌돌프의 조교로 활동하는 한편 첼로와 바로크 첼로 복수전공 전액장학생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부산챔버뮤직 소사이어티의 수석 멤버, 앙상블 GEM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교육과 연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교육은 나의 연주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음악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관성적으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바로 드러나게 돼요, 가르치다 보면 연주자로서의 선택 하나하나가 '왜 그런가'라는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주가 더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습관이나 과장된 표현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곤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혼자 결정해야 하지만, 교육의 현장에서는 그 결정의 근거를 타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 그 경험이 제 연주를 더 책임감 있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 그동안의 배움을 통해 얻은 것들은 무엇이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요.

돌아보면 가장 큰 배움은 누군가에게 명확한 답을 얻었던 순간보다 혼자 질문을 붙들고 있어야 했던 시간들에서 왔습니다. 연주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스승이 해답을 주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막막함과 동시에 자유를 함께 경험했죠. 그때의 시기들이 제 음악과 사고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성장은 언제나 편안한 상태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확실함을 견디는 시간이 결국 연주자의 깊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학생들과의 실내악 연주회 후 기념사진

**스스로 배워야 하는 시점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더 이상 '정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없는 나이에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불안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함 자체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쉽게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악보를 다시 읽고, 녹음을 듣고, 때로는 연주를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죠. 혼자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설득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끝까지 파고들어 가는 태도가 배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많이 하나요.**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음악 자체의 어려움보다, 음악을 둘러싼 불확실한 환경에서 오는 불안이 더 크다는 걸 느낍니다. 끊임없는 비교, 빠른 결과에 대한 압박,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쉽게 지치게 만드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음악을 잘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결국 음악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면 음악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AI 시대에 음악을 공부한다는 것은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감각과 판단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공부는 속도나 효율이 아니라, '왜 이 소리가 필요한가'를 스스로 묻는 훈련이죠. AI는 많은 것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인간의 감각, 그리고 그 감각에 책임을 지는 태도까지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점에서 음악 공부는 여전히 인간에게 무척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효율과 결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느리고 불완전한 인간의 감각을 다시 신뢰하게 만들죠. 예술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문제와 함께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점에서 시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수록 저는 예술이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아닐까 확신합니다.

**교육자로서는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주 실력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또 자기만의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계속 키워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학생들이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보다 "왜 이 음악을 선택했는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라는 넓은 바다 앞에 선 '제자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음악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불안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불안함을 견디며 계속 질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음악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해요. 누군가와 비교하며 가는 길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자기 속도로 가는 것이 결국 더 오래 자신이 원하는 길, 의미 있는 길로 향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시간도 음악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에게서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걸어온 길을 믿고, 서두르지 말자고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가보자고 격려해 주고 싶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just do it!" 그리고 언제나 나의 음악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기를.

첼리스트 홍승아는 현재 무대와 교단에서의 소통을 넘어 리즈 아틀리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세계의 더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잇고 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가르침과 배움 안에서 새로운 기획과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채우며 새로운 여정을 걷고 있다. 교육은 원석을 찾아 오랜 시간 다듬고 세공하여 찬란한 보석으로 탄생시키는 과정이기에 그녀가 꿈꾸는 음악 유토피아의 멤버가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인생은 더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예술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묻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우리는 각자의 질문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때론 과거로 떠밀려가는 듯하면서도 결국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매 일은 새로운 음악이고 찬란한 시작이다.

글 글지연